변화하는 가을 산사축제 '비대면' 대세

증심사 · 내소사 · 전등사 등
산사음악회 비대면 개최 눈길
손쉬운 유튜브 채널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접근성 제고
지역 협력 강화 · 홍보 효과도


지난해 열린 강화 전등사 삼랑성역사문화축제 모습.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에는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다른 사찰들도 가을 문화축제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곳들이 증가했다.

노덕현 · 하성미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을 산사 축제들이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산사 축제의 전형을 선보이고 있다.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문빈정사**(주지 석장), **약사사**(주지 무진)는 10월 30일 무등산 증심사 지구 입구 잔디광장에서 '2021무등산 산사음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산사의 음악을 전한다. 행사에는 국악인 오정해 씨를 비롯해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국립공원 무등산을 찾거나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건강한 힐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도 매년 개최하는 산사음악회를 일부 출연진을 제외하고 비대면을 통해 늦가을 산사의 정취와 음악을 오는 11월 13일 일반인들에게 전달한다. 특히 가수 진성 씨를 비롯해 통기타 강지민, 성악그룹, 국악 등 다양한 장르에 음악을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 행사이다.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는 10월 16일 개막하는 개산대재를 유튜브로 중계한다. 11월 6일 열리는 **선운사**(주지 경우)의 제13회 선운문화제도 오전 9시 수륙무차평등대재를 비롯해 오후 진행되는 산사음악회가 유튜브로 중계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가 10월 16일 여는 팔관회도 오후 1시 어린이 수계식인 선재동자 수계법회를 비롯해 오후 2시 호국영령위령재 등이 부산불교연합회 유튜브 채널 BBA TV로 중계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와 함께 비대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찰의 축제는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먼저 10월 2일 개막한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의 제21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유튜브채널인 전등사TV를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열렸다. 축제 시작일인 2일 가을음악회에는 가수 김태우, 임정희, 먼데이키즈, 스탠딩에그, 임슬옹, 펀치, 국악소녀 양은별 등이 출연해 사찰로 오기 힘든 불자들의 눈을 사로 잡았다. 여기에 전등사는 3일 진행된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대재' 또한 유튜브로 중계했다.

유튜브 중계는 사찰 입장에서 손쉽게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전과 달리 간단한 장치 만으로 가능하기에 비용의 부담도 적다.

전등사 측은 "산사음악회를 비롯한 사찰 축제는 사찰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민들의 몇 안되는 문화행사기에 비대면으로나마 개최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관 행사단체들과의 협력관계 등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축제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찰축제 변화의 특징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생중계다. 각종 SNS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가을 산사의 아름다움을 통해 '힐링'을 주고자 하는 현장의 생생한 화면과 음악을 공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전파하고 있다.

무등산 산사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행사 관계자는 "대면과 비대면 준비는 큰 차이는 없다. 많은 관중이 없지만 음악과 가을 산사의 정감을 멀리서도 느낄 수 있다. 특히 SNS를 활용하면 평소 관심이 없던 이들도 접하게 된다"고 장점을 전했다.

주재형 부산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은 "연등축제, 릴레이기도 등 그동안 많은 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함께 중계해왔다. 불교계가 지닌 노하우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찰 행사들이 사찰과 사암연합회, 지역불교연합회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중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비대면 포교 본격화

9월 25일 23주년 법회서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서온 국제포교사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코로나 상황에 맞는 비대면 포교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이재홍)는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23주년 기념법회와 사단법인 문화나눔 설립 7주년 기념식,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원진들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시스템 줌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재홍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미래의 국제포교사 양성 교육과 기초불교 영어 과정을 비대면 양방향 방식으로 진행하고 매달 개최해온 인터넷 화상 영어법회도 국내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 여는 등 온라인 비대면 포교와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비대면 활용 포교에 앞장서겠다"며 "비대면 포교 연구개발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교육과 법회가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글로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법 홍보의 새로운 시발점이자 국제포교사회가 국제 포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대전환점"이라고 격려했다.

기념법회서는 외부 인사들의 국제포교사회에 대한 '쓴소리, 단소리' 동영상이 소개됐고 임시총회에서는 하반기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회칙 개정과 규칙 제정, 폐지 등 안건이 처리됐다. 노덕현 기자


서울 봉은사는 9월 28일 법왕루에서 '관세음보살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관세음보살 가피 받아가세요"

봉은사, 9월 28일 관세음보살상 점안식 봉행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가 4000여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관세음보살상을 새로 조성했다. 봉은사는 9월 28일 법왕루에서 '관세음보살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안식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증명과 도성 스님 인례로 열렸다.

봉은사 법왕루 관세음보살상 조성불사는 1년여 동안 진행된 불사로 총 1020세대 4148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봉은사는 도심사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도중심도량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불사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조성된 관음상 협시로는 남순동자와 동해용왕상도 함께 조성돼 관음도량의 면모를 다졌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그동안 대웅전에서 봉행되어온 새벽예불을 법왕루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도법회 참석을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기도 가피력을 모두 받아가시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관광의 날 대통령 표창

9월 27일 포상 전수식서 수상
관광 · 지역 경제 활성화 공로



제48회 관광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21관광진흥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사진>이 한국 관광 진흥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원경 스님은 9월 27일 '제48회 관광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21관광진흥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원경 스님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소속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이끌며 국내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분야 코로나19 극복 등에 힘쓴 공로로 이번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특히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으로 전 국민 심신치유에 힘쓰고,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사찰음식 나눔으로 우리 사회 발전과 회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원경 스님은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 스님과 지도법사,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표창은 템플스테이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을 대표해 함께 받은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내년에는 템플스테이 운영 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향후에도 대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관계자, 소상공인, 여행업계, 문화예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공익 템플스테이를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뜻도 밝혔다. 지난해 불교문화사업단의 공익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은 연인원 기준 총 4만 6000여 명이다.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불교의 자비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모든 이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난치병 환아 치료지원

9월 29일 전달식… 1억9천만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21회 국내 · 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지원 전달식을 열고 23명에게 총 1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전달식에서 지원자 대표 김지윤(13세) 양 어머니 신해정 씨에게 직접 1000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원행스님은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겠다. 용기를 갖고 치료에 잘 임해달라"고 격려했다.

인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천하여 이번 지원 대상자가 된 김지윤(13세)양은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 누난증후군, CHOPS증후군을 앓고 있다.

신해정 씨는 "14년간의 투병생활로 인해 가정형편도 어려워졌다. 불교계의 지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번 제21회 난치병어린이 치료비 지원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진행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2021년도 하 반 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지 원 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일(금) ~ 10월 31일(일)**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11월) → 지원금 입금(12월)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된 스님(신규 및 기지원자 모두 해당)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군 복무 중인 스님
7.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불기2565(2021)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금 곡**